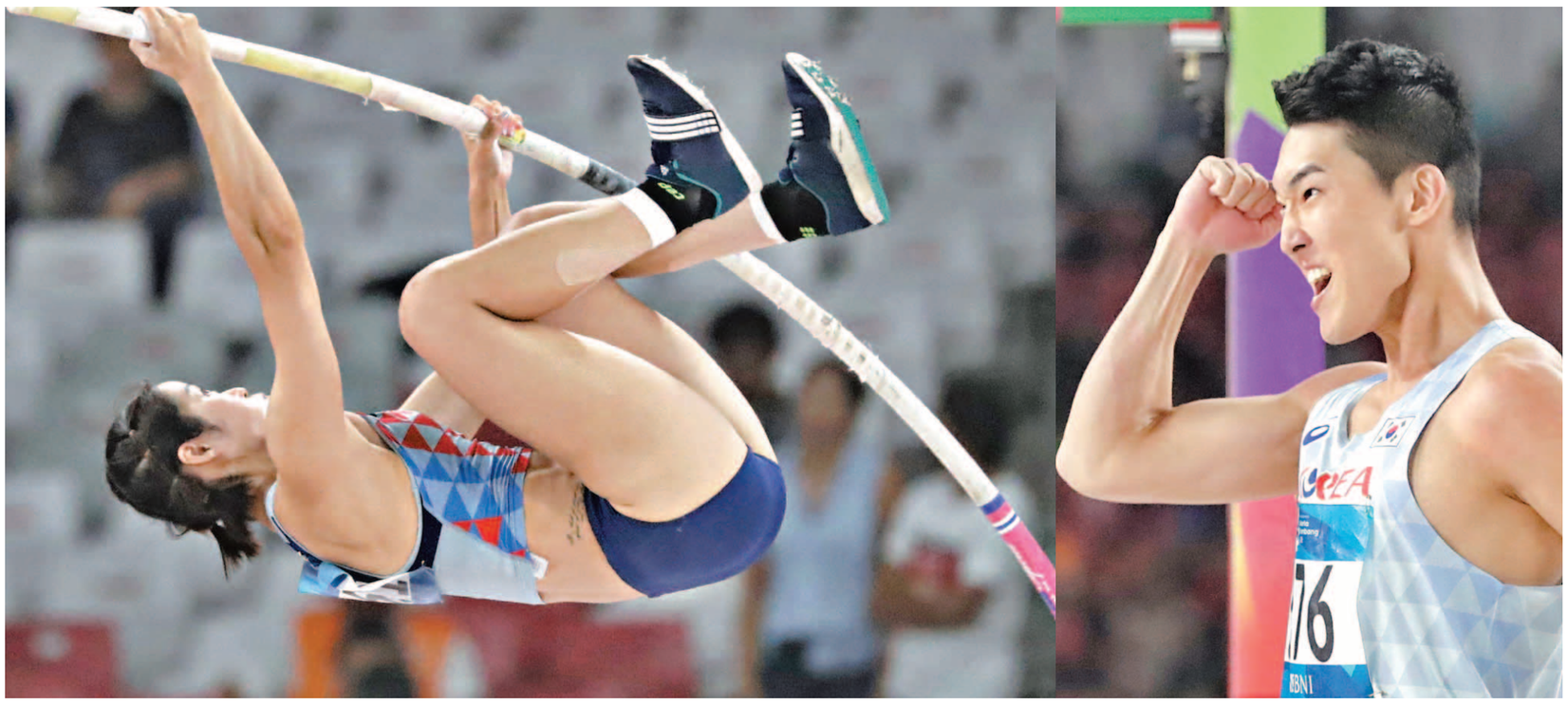
18th ASIAN GAMES Jakarta Palembang 2018
2 스포츠동아 제2912호
2018년 8월 30일 목요일

한국육상 의미있는 선전 | 허들 정혜림 金·높이뛰기 우상혁 銀·장대높이뛰기 임은지·창던지기 김경애 銅



메달 불모지로 여겨졌던 육상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여자 장대높이뛰기 임은지(왼쪽)는 28일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은 27일 은메달을 획득했다. 자카르타(인도네시아) | AP뉴시스

육상 불모지에 뿌린 땀, 드디어 꽃은 피는데…

투자도 없고 선수도 적은 한국육상서
임은지 두 대회 연속 동메달 값진 결실
창던지기 김경애 16년만에 메달 사냥
2020 도쿄서 세계 강호들과 대결 고대

한국은 '육상의 불모지'라고 불린다. 특히 마라톤 등 지구력을 요하는 종목과 달리 순간적인 파워를 내야 하는 종목에서는 매우 취약하다. 세계무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체격조건에서 오는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아시아권인 중국, 일본에 비해서도 유독 약한 편이다. 국제종합대회에서 육상은 가장 많은 종목이 걸려 있지만, 한국이 따는 메달은 극소수다.

2010년대 들어서는 육상에도 스포츠 과학이 접목되어 경기력이 향상됐지만 타 종목에 비해 투자가 부족하고 선수 숫자 자체도 워낙 적다보니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나오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는 육상에서 의미 있는 메달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여자장대높이뛰기 임은지(29·성남시청)와 여자창던지기의 김경애(30·대전광역시청)는 28일 나란히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은지는 결선에서 4m20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리링(4m60), 태국의 차야니사 촘추엔디(4m30)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4년 전 인천 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면서 여자장대높이뛰기 최초의 AG 메달리스트가 된 임은지는 두 대회 연속 메달의 영광을 안았다.

김경애는 결선 5차시기까지 최고 56m00을 던져 4위에 그쳤지만 마지막 6차시기에서 56m74를 던져 56m46m을 던진 사이토 마리나(일본)를 제치고 극적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여자창던지기에서 메달이 나온 것은 2002년 부산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영선 이후 16년만이다. 김경애는 무려 세 번의 AG 도전 끝에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

지난 26일 정혜림(31·광주광역시청)은 여자허들 100m에서 13초20의 기록으로 이번 AG 한국 육상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0년 광저우 대회 이연경 이후 8년 만에 나온 귀한 금메달이었다. 또 27일 남자높이뛰기에서는 우상혁(22·서천군청)이 2m28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 역시 2002년 부산 대회 이진택의 금메달 이후 16년 만에 남자높이뛰기에서 나온 메달이었다.

육상은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평소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심지어 AG에서 조차 생중계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임은지와 김경애의 경기가 펼쳐질 때 TV에서는 야구대표팀의 예선경기가 중계됐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인기 종목이지만, 이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AG 무대를 넘어 2020도쿄올림픽에 출전해 한국 기록은 물론이고 세계 강자들과 실력을 겨뤄 보겠다는 의지로 가득하다. 이들의 도전의 지는 '육상 불모지'라 불리는 한국 육상의 한줄기 빛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국가별 메달 순위 〈29일 19시〉

18th ASIAN GAMES Jakarta Palembang 2018

		금	은	동	합계
1	중국	100	65	48	213
2	일본	48	44	62	154
3	대한민국	35	40	48	123
4	인도네시아	28	22	35	85
5	이란	17	16	16	49
6	대만	13	15	20	48
7	북한	12	8	8	28
8	인도	9	19	22	50
9	우즈베키스탄	9	15	14	38
10	태국	9	13	34	56
29	코리아	1	0	2	3

주목! 오늘의 명승부 〈한국시간〉

유도
여자 57kg · 63kg급 · 70kg급
남자 73kg · 81kg급 ▶오전 11시

핸드볼
여자 결승 한국-중국 ▶오후 8시

야구
슈퍼라운드 한국-일본 ▶오후 2시

농구
여자 4강전 코리아-대만 ▶낮 12시
남자 4강전 한국-이란 ▶오후 6시

정구
혼성 복식 예선 및 결승 ▶낮 12시

탁구
남녀 단식 예선 ▶낮 12시

사이클
남자 트랙옴니엄 예선 및 결승 ▶오전 11시
남자 스프린트 결선 ▶낮 12시
여자 3000m 개인추발 예선 · 결승 ▶낮 1시30분

육상
남자 50km경보 ▶오전 8시
여자 세단뛰기 결선 ▶오후 8시30분 등

카누
카누 남자 C2 500m 결선 ▶오전 10시30분
카약 여자 K1 500m 결선 ▶오전 10시50분 등

수영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예선 및 결선 ▶오후 2시
수구 남자 8강 등 ▶오전 11시

승마
장애물 개인전 결선 ▶오전 9시

스쿼시
여자 단체 예선 한국-일본 ▶낮 12시
남자 단체 예선 한국-파키스탄 ▶오후 6시

럭비
남녀 조별예선 ▶오후 1시

세팍타크로
남녀 쿼드런트 조별리그 ▶낮 12시

"황의조는 한국의 해리 케인"

"손흥민-케인이 뛰는 것 같다"
베트남 언론들 가장 큰 관심

한국 23세 이하(U-23) 남자축구대표팀의 와일드카드 황의조(26·감바오사카)는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AG)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AG 뿐만 아니라 단일대회에서 두 차례나 해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까지 5경기에서 8골을 몰아쳐 '역대급 와일드카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과 4강에서 만난 베트남 언론까지 황의조를 주목했다. 베트남 매체 24.com은 29일 열린 한국과의 4강 맞대결에 앞서 'AG 8골을 기록한 한국의 해리 케인을 조심하라'며 황의조를 언급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25)은 손흥민(26·토트넘)의 팀 동료다.

이 매체는 "한국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흥민, 바르셀로나 B출신의 이승우(20·베로나) 등 좋은 공격수들이 포진해 있다. 하지만 가장 위협적인 선수는 또 다른 인물이다"며 황의조를 주목했다.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손흥민이지만, 팀을 주도하고 있는 선수는 일본 감바오사카 소속의 황의조다. 5경기에서 8골을 넣었다. 그는 페널티 지역에서 최고의 실력자다. 우즈베키스탄은 황의조에게 박살났다"며 황의조의 활약상을 소상히 소개했다. 또 황의조와 손흥민의 연계플레이에 대해서는 "마치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케인이 함께 뛰는 것 같다"며 황의조를 케인에 빗댔다.

황의조

더불어 손흥민, 황의조 모두 아직 군 복무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매체는 "한국이 금메달을 따면 손흥민과 황의조는 병역혜택을 받게 된다. 토트넘은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지욱 기자

눈물 닦은 여자축구 "동메달 걸고 유종의 미"

11연승 중인 대만과 내일 3~4위전
신구조화 굿…내년 월드컵 도전 기대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은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AG)에서 목표로 했던 사상 첫 결승진출에 실패했다. 28일(한국시간) 일본과의 4강전에서 0-1로 끌려가다 1-1로 균형을 이루는데 성공했지만 후반 41분 수비수의 자책골이 나와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민아(28·고베아이낙)의 동점골 이후 2~3차례 좋은 역전 찬스를 만들어내는 등 사실상 경기를 지배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다. 경기 후 선수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국 여자축구는 역대 AG에서 늘 유종의 미를 거뒀다. 결승 진출 실패로 인한 좌절감에 젖어있지 않았다. 2010광저우AG와 2014인천AG에서 모두 3~4위전을 치렀는데 값진 동메달을 두 번 다 목에 걸었다.

한국은 31일 오후 5시 인도네시아 팔렘방 겔로라 스리위자야 스타디움에서 대만과 이번 대회 동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대만은 4강전에서 중국에 0-1로 패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대만과 경기를 치러 2-1로 승리하는 등 최근 맞대결에서 11연승을 기록 중일 정도로 절대적인 우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마치면 또 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선다. 2019년 6월 프랑스에서 펼쳐지는 2019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본선이다. 한국은 올해 4월 월드컵 예선을 겸해 열렸던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5위를 차지해 본선 진출권을 획득했다.

'울지 마라, 고개를 들자!' 한국여자축구 대표팀이 28일 열린 4강전에서 일본에 패하며 사상 첫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눈물을 흘리는 임선주(왼쪽 두 번째) 등 선수들을 위로하고 있는 윤덕여(오른쪽) 감독.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대표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신구조화가 점점 완성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걸 증명했다. 1988년생으로 30대에 접어든 동갑내기 조소현(아발드네스), 이은미(수원도시공사), 전가을(화천KSPO)을 중심으로 지소연(28·첼시), 이민아, 장슬기(24·현대제철), 홍혜지(22·경남창녕WFC) 등의 선수들이 아시안컵 때보다 한 결 더 나아진 경기력과 조직력을 선보였다.

한국 여자축구의 월드컵 최고성적은 바로 전 대회였던 2015년에 이뤄낸 16강 진출이었다. AG에서 아쉽게 결승 진출이라는 목표달성에 실패한 여자 태극전사들은 동메달 결정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일념으로 다시 뛰고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